

‘대학기록관’의 확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Archives’

최 정 태 (Jung-Tai Choe)**

〈 목 차 〉

- | | |
|---------------------|---------------------|
| 1. 대학기록관의 명칭과 역할 | 3. 국내 대학기록관의 현황과 실태 |
| 2. 국외 대학기록관의 제도와 활동 | 4. 대학기록관의 확립과 운영방안 |

초 록

국내외에 설치된 대학기록관의 현황과 활동을 조사 관찰하여 우리 나라 대학기록관 설립을 도모하며, 이에 따른 명칭문제와 역할을 정립하고, 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적 기구로 확립하는데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s of ‘university archives’ in the North America, Japan including Korea. First of all, to understand basic concepts and character of university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 Next, to mak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archives’s name, a role, function and management activities of them.

* 이 논문은 1998년도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대학기록관의 명칭과 역할

대학에서 도서관, 박물관과 같이 아카이브스(archives)가 설치된 곳이 전국 180여개 4년제 국·공·사립대학 중에서 모두 10여 개교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제각기 다른 명칭을 쓰고 있다.¹⁾

이들 기관은 저마다 가지는 이름처럼 특성과 성격에서 차이가 나며 대학 내에서 조직계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도 사뭇 다르다. 그 명칭과 조직, 운영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미에서의 대학아카이브스(university archives)는 도서관(university library)처럼 대학의 주요기관으로 정착되어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1636년 개교이후 대학의 역사와 관련되는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아카이브스를 1939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유서 깊은 많은 대학, 그리고 일본에서 1백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東京大學을 비롯한 국, 사립 명문대학들은 거의가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카이브스의 개념은 도서자료를 제외한 영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를 비롯한 비도서 형태의 자료(documents, records)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selecting, acquiring), 관리(management)하며 보존(preserving)하는 시설(building, institution) 또는 기관(agency)을 지칭하는 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을 번역한 通用語로서, 전자기록²⁾ 또는 기록물³⁾ 문서⁴⁾ 사료⁵⁾등으로 칭하고, 후자를 '기록보존소'⁶⁾ '기록물관리기관'⁷⁾ '자료관'⁸⁾ '문서관'⁹⁾ '문서관리소'¹⁰⁾ '문서보존소'¹¹⁾ '고문서보관소'¹²⁾...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명칭의

- 1) 경희대학교, 경희역사자료실 ; 고려대학교, 교사자료실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학교사자료실 ; 부산대학교, 대학사자료실 ; 서울대학교, 대학기록관리실/大學史庫 ; 숙명여자대학교, 교사자료실 ; 연세대학교, 연세기록보존소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자료실 ; 전남대학교, 校史室/학교사자료실 ; 충남대학교, 교사박물관
- 2) 어떤 물체에 문자 또는 기호로 사실을 적는 행위, 또는 적어 둔 매체,
- 3) 기록해 놓은 매체, '기록'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 '물'은 反復語義가 되어 '기록물'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辨別해서 쓸 경우가 아니라면 '기록'으로 표기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록'만으로 명사형의 개념이 불충분할 때 '물'(an object)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식'과 '음식물'과 같은 의미 차이이다.
- 4) 서지학계나 관련학자들은 옛 법전과 고례 및 현행 형법에 근거하여 '문서'에 중심을 두고이를 選好하고 있다.(송정숙, "미국 문서관의 현황" 『書誌學研究』 제17집(1999.6) pp.347-372) 그러나 사회 통념상 文書는 公文書, 私文書, 古文書, 現代文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圖書와 대치되는, 즉 종이에 쓴 '書類'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개념전환을 극복해야 통용이 가능할 것이다.
- 5) 사학계 등에서 '역사자료'의 줄임말로 쓰고, '고문서'의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 6) '정부기록보존소' / 행정자치부 소속의 한 기관
- 7)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 제2조(정의)에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기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둔다.
- 8)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 제9조(자료관) ①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통일문제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 용례로 ‘기록’ 또는 ‘기록물’이라고 말하는 record¹³⁾는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수집 및 보존하는 기록물로서, 현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records for current use)와 연구 조사를 위한 자료(records for research)로 구분된다.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해 생산된 기록자료(records)가 이용된 후 보존가치를 지닌 영구보존자료를 ‘archives’라고 하며, 이는 ‘records’의 한 부분에 속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archives’를 古文書, 史料등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¹⁴⁾

日本の 경우와 같이 한국에서도 통상적으로 records는 현행문서, 현대자료로, archives는 고문서, 보존자료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정의하자면, 古文書는 一定時代 이전에 생산된, 즉 시간적 개념이 작용된 것임에 반해, archives는 최근의 자료를 포함해서 평가기준에 의해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¹⁵⁾ 이러한에도 사학계 등 일각에서는 광의의 기록물(records)에서 현대적 내용물은 소외시키고, 고문서 및 사료가 주축이 되어 이것이 곧 보존자료이고, 동시에 archives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영국의 국립기록관의 명칭은 ‘Public Record Office’(PRO)이다. 명칭으로만 본다면, 공공기록만을 수집 관리해야 하지만 이곳은 영국의 전통적 기록물(archives)과 문화적, 역사적 유산물(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까지 모두 통합관리 한다.¹⁶⁾

또한, 미국의 유명한 ‘National Archives’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이다. 즉 이곳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역사자료와 함께 현행 기록물도 비중있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국가중추기관이다. 우리는 이를 번역할 때에도 ‘국가’ 또는 ‘국립’을 사용, ‘국립문서관’ ‘국립문서관리소’ ‘국립문서보존소’ ‘국립기록보존소’ ‘국립기록관리청’ ‘국립기록관리보존소’등 자기중심적으로 접근하여 NARA라고 하는 국가의 거대한 기구의 기능과 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의 언어 표기상 한계가 있겠지만 NARA의 정체성을 제대로 해석하고 구현하려면 보존자료(archives), 모든기록(records), 관리(administration), 보존(preservation), 이 4개의 개념이 숨겨진 명칭을 찾아야 할 것이다.

9) 일본에서는 대체로 ‘文書館’ 또는 ‘史料館’으로 칭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公文書館’으로 통칭한다.
 10) 기록자료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 즉 관리적(administrative)성격이 강하다.
 11) 기록자료를 보존하는 기관, 즉 보존적(preservative)성격이 강하다.
 12)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 잠정적으로 비치 보관하는 ‘물품보관소’와 같은 의미가 앞선다.
 13) 아키비스트 전문용어로는 “법률적 임무수행과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 단체가 생산 또는 수집하여 관리, 유지하고 있는 기록(document; item; official record)”을 말한다. (Lewis J. Bellardo and Lady Bellardo, A Glossary for Archivist,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AA, 1992. p.28)
 14) 金谷媛 “韓國における國家記録資料管理システムの現況”, 『Records Management』, 『記録管理學會誌』(記録管理學會) No.35(1997. 10) pp.43-51.
 15) 金谷媛, 위의논문 p.44
 16) Michael Roper, (PRO前館長) “Accountability and the Rol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日本]駿河台大學, 文化情報學研究所 主催 第1回 講演會(1999.10.19)資料)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대학에 설치된 아카이브스(archival institution)는 위의 개념을 가지고, 이에 합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것도 十人十色으로 각자 편한 대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기관명이 내포하는 성격과 역할을 감안하여 그 명칭을 '대학기록관'¹⁷⁾으로 명명키로 한다.

최근 들어 우리 대학들이 대학기록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각 대학이 점차 연륜이 쌓임에 따라 年史編纂을 비롯한 대학사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빈곤에서 오는 위기의식이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통령기록물'의 훼손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입법 공포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공립대학 뿐 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자체기구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 관리, 보존하는 '자료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그 영향은 사립대학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본다.

대학기록물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교육과 연구, 봉사, 행정, 학습, 교양 등의 교내외 활동과정에서 생산 수취 유지하는 자료를 말한다.¹⁸⁾ 따라서 지적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대학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수준 높은 학술정보와 많은 양의 기록을 생산하기 때문에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법률이 이러한 자료를 관리하는 기구설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대학이 먼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도적 기구로 정착하려면 먼저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공유(consensus)와 함께 대학총장을 위시한 대학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1998년 4월 서울대학교는 기획실 내부기구로 '대학기록관리실'을 설립하였다. 이 대학도 지금까지 다른 대학처럼 학내 교사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몇 해마다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50년사' '60년사' 등을 편찬할 때마다 자료수집의 악순환을 반복하였다.¹⁹⁾ 이와 같은 관행을 바로 잡고자 대학기록을 체계적으로 발굴, 수집, 관리, 보존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17)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기록관리실' '××기록보존소' 등으로 표기하는데, '기록실' 또는 '기록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말하지 '도서관실' 또는 '도서관보존소'라고 蛇足を 달지 않는다. '문서관' '정보관' '박물관'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부산대와 일부대학에서 命名하는 '대학사자료실'과 '교사자료실'(校史, 校畝, 教師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은 실(room)단위의 최소기구이다. 이 기구가 한 단계 확장되면 '대학사자료관'(이 명칭도 결국 "역사자료만 취급하는 곳이나"라는 물음에 '현행기록관리기관'의 설치문제는 다시 숙제로 남는다)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완성단계로 격상되려면 '대학기록관' 또는 '대학기록센터'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8) 김상호,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2000.3), p.260

19) 김기석, "기록을 홀대하면 역사가 양갈음을 한다: 대학사고의 존재와 이유", 「大學教育」 제95호(1998.9/10) pp.90-97.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대학들은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설정과 준비가 미진하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개념이 ‘대학문서보관소’ 수준에 머무르거나, 대학의 한시적 기구로 생각하여 적절한 시설이나 전문가(archivist)도 없이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대학의 경우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아 아직도 공식기구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²⁰⁾

- ① 대학기록의 수집, 보존을 위한 대학차원의 관리규정이 없다.
- ② 대학기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없다.
- ③ 대학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
- ④ 주요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다.
- ⑤ 대학기록의 활용에 관한 일관된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비단 서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설치된 대학뿐 만 아니라 앞으로 설치를 계획하는 모든 대학에도 함께 주어지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대학기록관의 이해를 위해서 대학도서관과 박물관, 이 삼자의 특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기록관은 당해 대학에서 생산된 자료, 또는 그 대학과 관련 있는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기록과 역사자료 등 주로 1차자료(primary materials)를 종합적으로 발굴, 수집, 평가하고 보존, 관리하여 대학의 연구지원을 도와주는 기구인데 비해, 도서관은 1차자료를 포함해서 주로 가공 편찬된 2차자료(secondary materials)를 수집, 조직, 보존, 활용하는 기관으로 문헌 및 지식정보를 교육과 연구를 지원한다는 면에서 두 기관은 유사하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서는 아카이브스를 도서관의 기구로 흡수하여 도서관 본관의 한 코너 또는 별관에 특별장서(special collection), 희귀도서(rare books), 필사본(manuscripts), 고문서(antiquarian)등을 묶어 일괄 관리하는 곳이 많다. 한편, 박물관은 보편적으로 문헌 및 기록자료(archives, records)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relics) 등 박물관자료(museum piece)를 발굴, 수집함으로써 위의 두 기관과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대학기록관은 미국과 달리, 대학의 전시성 사업과 홍보용 시설의 하나로 박물관에 편입되는 사례가 많다.

기록관은 도서관과 박물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료의 주 수집대상물은 문서를 위시한 기록자료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자료의 시각적 활용이나 연구지원 시설로서 박물관적 접근기법을 도외시킬 수 없다. 기록관은 두 기관의 기능을 포괄하고 자료의 성질

20) 서울대학교 기획실 대학사료실, 서울대학교 기록보존사업에 관한 연구. 1998.1. 141p.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1권 제 2호)

이 독특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구영역과 역할이 요구되며, 대학의 교육과 연구지원 및 홍보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기록관(Columbia University Archives)의 설립 목적을 보면 교육과 연구, 학교의 발전사, 학제의 조직, 행정단위, 대학생활, 사회봉사, 지역 및 국가, 세계 속의 대학 역할을 포함한 컬럼비아대학의 발전상과 목표를 기록 관리하는데 있다. 따라서 컬럼비아대학 기록관은 역사기록 관리를 위하여 종이, 사진, 영화필름, 동영상자료, 전자자료 등 다양한 매체로부터 대학의 기록을 수집한다.²¹⁾

이처럼 컬럼비아대학은 교육과 연구 뿐 만 아니라 지역, 국가, 세계 속의 자료를 거시적으로 수집한다. 그렇지만 다른 일부 대학들은 보다 미시적으로 ① 대학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행정기록들 ② 학생, 교수, 학과의 기록들 ③ 학내단체나 서클의 공식적인 기록들, ④ 총장의 통신 내용, 교수의 원고나 강의노트, 대학간행물, 언행록 등²²⁾ 대학내부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국내에 이미 설치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지금 '부산대학교대학사자료실'이 수집하고 있는 범주²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문헌자료

- 공문서 : 부산대학교 설립 기성회 조직, 부산대학교 건설 후원회 등 본교 설립 인허가 관련 자료, 정관 및 규정 류, 대학 요람, 대학 안내, 연차보고서, 각종 회의록, 통계 연보, 교직원 명부, 대학 캠퍼스 건물 변천 등을 보여주는 각종 설계도면
- 기관별자료 : 교내 각종 출간물, 부속 및 부설 기관 정기 간행물, 행사 팸플렛, 홍보물, 편지, 학교소식지, 교지, 동창회보, 사역작업 일지
- 학생활동자료 : 대학 신문, 각종 유인물, 전단, 교육 실습일지, 실험일지
- 개인자료 : 직원 임용장, 각종 증서(졸업 증서, 수료증서, 성적표, 납입 고지서 등), 학생증, 도서대출증, 교과서 및 강의 노트, 교수 및 동창의 저작물, 회고록, 자서전, 각종 diary(출판부 및 학생회), 졸업앨범
- 사진 및 영상자료 : 사진, 필름, 슬라이드, 영화, 비디오 테이프
- 녹음자료 : 음반, 카세트 테이프, 릴 테이프

21) Documenting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Archives Collection Policy and Documentation Plan", Office of the Secretary, Columbia University Archives, 1997(pamphlet)

22) Annabel Straus,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Three Decades of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40, No.5(Sept.1979) pp.432-439

23) 「부산대학교 반세기 발자취」(개교 53주년 기념 전시회 안내 리플렛) 부산대학교도서관대학사자료실,1999.5.15 (부산대학교의 기록물 수집대상을 이 리플렛과 「도서관소식」 「교내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며 계속 수집 중에 있다.)

- 복식자료 : 교복, 교모, 교련복, 학위복, 체육복, 행사기념복
- 기념품 : 배지, 현판, 명패, 상패, 행사 기념품, 우승컵, 우승기, 학교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장 상패의 샘플, 내방 인사의 학교 관계자 선물
- 유 품 : 스승들이 사용하던 유품(의류, 문방사우, 가구, 골동품, 생활 용품 등)
- 학교교육물 : 학술사적 의의가 있는 교육 기자재, 실험 기구, 연구실적물, 보고서 등
- 기 타 : 우리 대학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관련 문헌 및 사료 등

대학기록관의 역할은 이상의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및 국가 속에서 대학의 과거를 기억토록 하며 미래의 목표를 준비하는데 있다. 이러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제도화되어야 하고 적절한 시설과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 기구를 관리하는데 많은 지침과 정책도 확립되어야 한다. 컬럼비아대학의 예를 보면, 학문탐구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되 대학의 행정권 및 대학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도 고려하여 자료의 성격에 따라 컬럼비아 귀중본도서관(Rare Book and Manuscript Library)과 긴밀한 협력 하에 자료를 평가, 관리한다. 또한 수집하지 않아야 할 자료와 수집자료의 공개와 비공개 연한을 규정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²⁴⁾.

이밖에도 여기서 취급하는 기록물은 자료조직(arranging and describing)방법에서도 일반도서관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출처의 원칙(principle of provenance) 내지 원본질서(order of original)의 원칙을 적용하며 처리 및 보존방법에서도 역할 차이가 크다. 그리고 대학기록의 기본개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자료의 구성에서도 독특하다.²⁵⁾ 때문에 아키비스트(archivist)와 문서전문 큐레이터(manuscript curator) 그리고 기록관리인(records manager)등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관이다.

이처럼 대학기록관은 대학에서 중요한 존재가치로 증명된다. 이로써 아카이브스는 그 기능과 역할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이 기구가 대학의 조직 속에서 독자적인 기구로 확립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인적구조가 확보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구조 속에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4) Columbia University Archives Collection Policy

25) Young Youn, "A Study on Management of University Archiv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9), pp.117-127.

2. 국외 대학기록관의 제도와 활동

기록관(archival institutions)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문화에서 비롯되었다. 기원 4,5세기 전 아테네사람들은 아테네광장 법원 옆에 '神의 어머니'Metroon이라는 사원에 중요한 자료들을 보존하였다. 그 사원에는 법률, 조약(조례)등의 주요 기록들과, 특히 소크라테스(Socrates)의 변론, 에이실러스(Aeschylus), 소포클레스(Sophocles), 유티피데스(Euripides)등에 의한 희곡들과 올림픽 게임의 勝者기록들을 보관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가 태어난 후 3세기 동안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전달되었으며 이 기록들을 모두 여기에 보관할 수 없었지만 초창기 보존은 이러한 기관에서 수행해 왔다.²⁶⁾

근대에 와서 프랑스는 1789년 혁명초기 때 의회가 공문서보관소를 설치하고, 다음 해 최초의 근대적인 파리 국립기록관(Archives Nationales of Paris)를 설립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5년 후인 1838년 8월 18일 공공기록관(Public Record Office)이 생긴 후 1800년대 런던에는 50개가 넘는 기록관이 발견되었다. 미국에서는 헤이스(R.B.Hayes)대통령이 1878, 1879년 연두교서에서 기록관을 설립 추진한 이래 1934년 6월19일 법령에 의해서 국립기록관(National Archives)이 정착하게 되었다.²⁷⁾

미국의 대학기록관(University Archives)의 확립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와 관련한 전문가단체의 활동이 앞섰다. 1936년 12월에 창설된 기록전문가학회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es: SAA)가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1949년 12월, 다시 이 기구 안에는 대학 기록전문가위원회(The Committee on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SAA Committee)가 구성되어 미국 내 대학아카이브스를 계몽 활착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본다. 그 주요활동을 보면²⁸⁾

- ① 대학기록관의 관리를 위한 표준의 제정
- ② 대학에서 유능한 기록전문가(archivist)채용 보장
- ③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교환기관의 설립
- ④ 대학당국자들에게 종합적 대학행정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제고
- ⑤ 장래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대학기록관의 성격이나 범위를 밝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의 영향으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자체의 프로그램 속에 아카이브스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 SAA Committee조사에 의하면 미국 350개 대학 중 응답대학

26) T.R.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 Univ. of Chicago, 1956. p.3

27) 같은책,pp.4-8

28) Annabel Straus, 같은논문 p.433 / <http://www.archivist.org/history.htm>

286대학에서 113개 대학이 설치되었다고 답했는데²⁹⁾ 이것은 1960년대 미국의 대학 설립 80주년, 100주년, 200주년기념행사가 이어지고 대학사편찬 등의 대학사연구를 위한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학기록관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1979년, SAA가 주동이 되어 미국의 대학아카이브스를 위한 지침(guideline)을 마련하였고,³⁰⁾ 그후 미국 대학에 80%이상이 전담 기록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다.³¹⁾

설치대학의 수적 증가수를 보면, 최근 일본의 東京大學이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학자료실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의 대학기록관 현황을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106개 대학 중 100개교에 기록관이 있다고 응답하여³²⁾ 이제는 미국의 대부분 대학에 기록관이 설립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 싶다.

이러한 대학기록관은 지금 거의가 Home page를 이용하여 自館의 제도와 활동을 알리고 있는데 본 연구자와 도우미가 함께 수집, 복사해 둔 구미의 대학별 ‘University Archives’가 60여 곳에 이른다. 그 중에서 북미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 개 대학의 사례로 이들의 제도와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Harvard University Archives³³⁾

- 설치년도 : 1939년
- 현 황 : 1636년 개교이래 현재까지 대학의 주요 기록을 모두 대학기록관에 이관, 보존하고 있음
- 역 할 : ① 주요대학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 활용하는 기록의 보관소(depository)의 역할을 담당.
② 대학기록이 생산, 사용, 폐기 및 보존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상설 전담 기구 역할을 담당.
- 제 도 : 대학기록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기록관리프로그램(Records Manage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당국은 1995년 3월 이사회 의 결정에 의해 대학기록의 생산, 유지, 이용, 보존의 전과정에 대한 지휘권을 대학기록관에 부여하였다.

29) Annabel Straus, 앞의 논문

30) Guidelines for College & University Archive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79. pp.1-12.

31) 김기석, 앞의 논문 p.90

32) 東京大學百年史編輯室, “東京大學關係諸資料の保存と利用に關する豫備的研究”-報告書及同附屬資料 抄録-, 「東京大學紀要」Vol.5(1986) p.141 / 유숙근, 학교사자료실 운영실태의 고찰 (이화역사자료실 발표자료)

33) <http://hul.harvard.edu/huarc/>

University Archives는 대학기록의 생산, 관리, 보존,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기록관리방안을 개발 제안하는 책임과 이 방안이 범 대학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학 각 기관들을 총괄 감독 지원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대학은 사립 대학으로 미국이 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기록관리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록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관련정책/규정 : Harvard Univ. Archives Mission Statement

Regulations for Use of the Archives

- 관 리 : 현행 행정문서는 행정적 유효기간이 끝나면 기록관리 전문가에 의해 그것의 기록적 가치가 평가되고 그 결과 보존문서는 제도적으로 University Archives로 이관된다. University Archives는 기록이 영구 보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나) Yale University Manuscripts & Archives³⁴⁾

- 설치년도 : 1969년
- 소속 및 위치 : 도서관
- 설 립 : 1906년경 도서관에 The Yale Memorabilia Room 설치
1938년 - Historical Manuscripts Room
1961년 - University Archivist, Curator, House Collection 구성
1969년 - 현재 형태의 Manuscripts and Archives 완성
- 기 능 : Yale 대학 구성원의 연구와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의 수집, 보존, 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제공.
Yale 대학의 역사, 활동의 고증과 연구, 이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연구집단의 요구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documentary repository 네트워크의 중요한 node의 역할.
- 관련정책/규정 : Manuscripts & Archives - University Policies and Guidelines
Rules Governing Use of Manuscript Materials
- 프로젝트 : Archives 300 Project 수행
- 수집대상 : Personal and Family Papers / Organizational Records

34) <http://www.library.yale.edu/mssa/>

- 소장자료 : 1,700 Collections
- 직 원 : Head of Manuscripts and Archives and University Archivist / Assistant Head Chief Collection Development Archivist/ Chief Arrangement and Description Archivist / Chief Research Archivist 등 26명

다)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Archives and Records Center³⁵⁾

- 설치연도 : 1945년
- 소속 및 위치 : 도서관 부속기구로 설치
- 기 능 : 대학의 교육과 연구지원
대학기록의 보관과 정리 / records retention과 retrieval services 제공
- 관리근거 : Protocols of the University Archives and Records Center(University Policy Statement
(이 규정은 대학차원에서 모든 기록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영구보존 기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짐.)
- 절 차 : 대학기록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영구보존기록은 University Archives로 이전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보관된다. 현재 모든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자료로 전환하는 작업이 공간절약 및 안정성 보장의 이유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직 원 : Academic Research and Reference Services - Archivist / Web Consultant / Records Management Services - University Records Manager 등 28명
- 소장자료 : 2,500 volumes / 14,000 cubic feet of archives and manuscript / 25,000 photographs, drawings, prints, paintings, and other visual materials

라)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³⁶⁾

UBC Library' Special Collections and University Archives Division

- 소속 및 위치 : 도서관, 8층
- 역 할 : University's institutional records의 repository 역할

35) <http://www.upenn.edu/AR/home/protocols.html>

36) <http://www.library.ubc.ca/spcoll/>

- Collection : cartographic archives and historical maps / photographic holdings / graduate theses / manuscript collection
- 정 책 : UBC Policy on the University Archives
UBC Policy on Records Management
UBC Policy on Records Retention and Disposition
- 위 원 회 : University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 직 원 : Division Head/ Manuscripts Curator/ University Archivist/ Reference Librarian/ Records Analyst/Archivist, Reference/Map Librarian 외 5명

위 4개 대학의 예를 보면 아카이브스가 대학의 주요기관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관리규정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며 적절한 시설과 인원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대학기록관은 모두가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다. 그 활동을 보면, 가),나)의 대학들은 복합기능을 가지고, UCLA의 헐리우드 영상기록관(Film & Television Archives) 또는 TWU(텍사스 여자대학)의 요리자료기록관(Cooking Archives)과 같이 대학 내부자료뿐 만 아니라 지역 및 범 국가차원에서 세계 唯一이라는 기치아래 자료를 거시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으며, 다),라)대학들과 같이 대학자체 기록만을 수집 관리하는 미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들도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연사편찬과 자료보존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하고 있는데³⁷⁾ 그 뒤에는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즉 1990년 4월에 결성된 '西日本大學史擔當者會'와 1988년 6월에 결성된 '關東地區大學史連絡協議會'가 그것이다. 이들 양 협의회는 1996년 10월 합동으로 '全國大學史資料協議會'를 결성하였다.

관동지구협의회는 이 지역에 소재하는 각 대학의 대학사편찬 및 자료보존, 이용 등에 관한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정보교환을 추진하며 회원 상호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研究部會에서는 대학사연구방법론에서부터 年史編纂 사업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나아가 자료전시와 보수기술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채택하여 강연회, 견학, 실습 등의 형태로 회원 상호간의 검토와 정보교환을 진행하고 있다.³⁸⁾

관동, 관서지구의 두 기구는 동서 합동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전국50개 대학에서 연사편찬과 자료보존 문제에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통적으로 대응기로 하였다.

37) 김정남역, "대학사편찬과 자료의 보존", 「圖書館文化」 제40권, 제6호(1999.11/12), pp.20-29.

38) 김정남, 같은 논문 p.21

그 이유는, 첫째, 자료수집이 쉬운 점이 아니라는 점. 둘째, 수집자료의 정리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각 대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셋째, 자료 보존은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이다. 대학사자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저작권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자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나 보존에 적합한 대학기록관 설립을 향한 활동을 취함으로써³⁹⁾ 대학기록관의 모든 문제점과 발전전략을 협동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적 활동으로 두 대학의 예를 살펴보면,

‘東京大學史史料室’은 1977년 東京大學 창립100주년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1974년에 설치되어 지금은 대학의 사료 편찬 및 연구와 史料管理學 研修 등 비교적 소극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후 많은 발전이 예견된다.

早稻田大學은 ‘大學史資料센터’(Waseda University Archives)에 대학과 대학관계자, 출신자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공개하고 있으며 연구프로젝트로 高田早苗研究(高田은 정치학자, 언론인, 대학경영자, 교육자로서 早稻田大學 발전의 공로자이다), 早稻田大學의 學術研究史, 新制大學史의 研究 「早稻田과 自由民權」 등을 연구하고 있다.(위 두 대학案内pamphlet에 소개 됨)

3. 국내 대학기록관의 현황과 실태

전술한 대로 지금 우리 나라 4년제 180여 국·공·사립대학에 대학기록관이 설치된 곳은 10여 개교로서 전체대학수의 5%에 불과하다. 설치시기에 있어서도 가장 오래된 곳이 5~6년 이고 나머지는 1~2년에 불과한 아주 최근의 일이다. 설치된 기구도 거의가 대학에서 독립기 구로서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부속기관 속의 부속기구로 존재하여 명 맥만 유지하고 있다.<표>참조)

39) 全國大學史資料協會 編, 東日本部會の十年の歩み

〈표〉 국내 대학기록관 현황

대학명 (개교년도)	명칭 (설립년도)	소속	직 원	설치장소	상설전시실	성문화된 규 정	계 획
경희대 (1950)	경희역사자료실 (1999. 5)	박물관	연구원 1인 조교3인 (겸임)	수원캠퍼스 본관3층	북도에 전시	박물관규정에 삽입	-
고려대 (1905)	교사자료실 (1994)	박물관	학예연구사 1명 수시로보조인원 활용	학생회관 (4·18기념관) 1층	상설전시	박물관교사자 료관리규정	전시공간확충
대구 효가대 (1914)	학교사자료실 (1998.10)	박물관	학예연구원 1명 조교 3명 (겸직)	박물관 1층	상설전시 (200평)	박물관규정에 삽입	-
부산대 (1946)	대학사자료실 (1999.1)	도서관	사서 1명 보조 1명	제1도서관 2층	자료실 내 전시	준비중	-
서울대 (1946)	대학기록관리실 (1998. 4)	기획실	기록관리실장 1명 조교 2명	도서관 일부공간	박물관 내 상설전시	없음	대학사교로 발전
숙명여대 (1906)	교사자료실 (1995. 5)	박물관	학예과장 1명 학예사 2명	도서관	없음		박물관신축
연세대 (1885)	연세기록보존소 (1998. 10)	독립 상설 기구	소장 1명 사서 학예연구원	도서관	없음	연세기록보존 소규정	-
이화여대 (1886)	이화역사자료실 (1989. 10)	독립 상설 기구	실장 1명 연구원2명 조교1명 시간제근로장학생 4명	대학원별관 (20평)	박물관전시 실 2개	이화역사자료 실규정	독립건물신축 계획
전남대 (1952)	교사자료실 (1997. 7)	박물관	도서관원파견 1명 행정직원 1명 조교 2인	용봉관 (구, 본부) 1층	상설전시 (30평,2실)	박물관규정에 삽입	박물관신축
충남대 (1952)	교사박물관 (1995. 5)	박물관	자료관리실장 1명 보조 1명	박물관	상설전시	"	박물관신축

대학 안의 조직을 보면, 독립상설기구가 2개교, 본부 기획실 소속이 1개교, 박물관소속이 6개교, 도서관 소속이 1개교로 분포되어 대부분이 박물관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기록관이 박물관에 주로 소속된 이유는 대학아카이브스가 연구지원기관이라는 개념보다 박물관의 외형적 기능만을 추수하고 오직 홍보수단으로 전시공간의 이점을 취하려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00개 대학기록관 중 82개교(82%)가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고, 15개교(15%)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교(3%)가 박물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⁴⁰⁾ 그것은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다른 형태의 수집물에 비해 문서 및 기록자료가 절대적으로 많고 취급하는 자료의 성격이 도서관과 유사하고 정리방법과 이용 및 봉사행태가

도서관의 기능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전문인력(archivist)의 구조도 결국 사서(librarian)의 역할과 대동소이함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 설치된 대학기록관의 실태와 활동상황을 보면, 이화여자대학교가 1986년 개교 100주년 이후 1989년에 독립된 상설기구로 발족하였으며, 제도적 운영을 위한 ‘이화역사자료실규정’을 갖추고 있다. 주요활동으로 이대 100년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자료의 전시, 조사연구와 함께 ‘100주년기념박물관’내에 상설전시실을 마련하고 ‘이화 100년사’ ‘이화100년사자료집’등의 출판물을 간행하고 있다.

1905년 개교된 고려대학교는 박물관의 부속기구로 있는 학생회관(419기념관)내 일부 공간에 사무실, 수장고, 작업실, 상설전시실을 가졌다. 1970년대 후반, 도서관 조직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1994년 도서관에 보관된 서적, 문서류와 시청각교육원의 사진, 영상자료 등을 박물관으로 자료를 이관하여 ‘교사자료실’로 확대 설치하였다. 개교 90주년 기념 학교사자료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연세대학교는 교학부총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된 독립기구로서 연세 창립 115주년이 되는 1998년에 ‘연세기록보존소’가 설립되었다. 별도로 ‘연세기록보존소규정’을 두고 소장과 사서, 학예연구원이 배치된 우리 나라의 모범적인 대학기록관 중의 하나이다. 일 백년 역사와 관련되는 학문적 업적과 역사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21세기의 연세학문과 교육발전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1998년에 기획실 소속으로 ‘대학기록관리실’을 설립하였다. 도서관 일부 공간에 사무실, 수장고와 열람실을 갖추고 있고 박물관 내에 교사자료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실이 있어, 결국 기획실과 도서관, 박물관 3개 기관이 ‘한지붕 세가족’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기록관’ 또는 ‘大學史庫’를 지향하며 독립건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통합기록관리 정보화계획’(SNUCA: Seoul National University Cyber Archives)⁴¹⁾이 완성되면 국내외에서 모범적인 대학기록관의 하나가 될 것이다.

부산대학교는 국내 유일하게 도서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1990년대 초까지 본부 기획실에서 수집 관리하던 대학사자료를 도서관에 이관하여 관리해 오다가, 1999년 개교53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산대학교 반세기 발자취’ 특별전시회를 기획하면서 ‘대학사자료실’의 활동이 본격도에 올랐다. 대학역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대학 발전사의 확인을 통한 구성원의 정체성 확립과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존가치를 지닌 산재된 대학의 기록을 선별하고 영원히

40) 유숙근, 같은 자료

41) 서울대학교기획실 대학기록관리실, “서울대학교 통합기록관리 정보화계획” 1998.6 (A4 13p. pamphlet)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정 기구가 아니며 관련 법규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만간 관리규정이 통과되고 제도적 기구로 확립되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경희대, 대구효가대, 숙명여대, 전남대, 충남대학교 등은 모두 박물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설치된 동기와 목적도 위의 대학과 유사하다. 대체로 대학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자생적으로 신설된 예인데, 공간부족으로 기구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각각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한국 대학이 다같이 부담하고 있는 재정적 영세성과 함께 대학당국자의 아카이브스에 대한 몰이해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4. 대학기록관의 확립과 운영방안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자료관)를 보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자료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同施行令’ 제5조(자료관의 설치)와 ‘同施行規則’ 제2조(자료관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국·공립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의 연간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인 기관과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기관은 ‘자료관’⁴²⁾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머지않아 국내의 모든 국·공립대학들은 법률에 의하여 자료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기록관의 근본적인 목표는 대학의 설립과 성장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증거자료를 발굴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학술연구물과 행정자료를 조직적으로 선별하여 수집, 관리, 보존함으로써 학문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건학이념과 특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성과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대학이념을 전달하고 자신이 배우고 있는 대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동시에 졸업생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열린대학(open university)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의 정체성(identity)을 공고히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대학기록관의 기능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많이 시행하는 예로서 대학 내부와 직접 관계되는 기록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특수 프로젝트와 연결하여 기록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대학과 사회에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활동의 범위를 축소하여 단순히 대학 자체에서 생산되거나 대학과 관련

42) ‘기록물관리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동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자료관’의 개념은 본 논문이 의도하는 ‘기록관’의 개념과 차별성을 가진다. ‘자료관’은 단지 당해기관에서 생산되는 公文書, 圖書등 현행기록물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때문에 지금 법률이 예시하는 ‘자료관’은 앞으로 ‘기록관’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

되는 자료만을 발굴, 수집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설치한 대학들도 이러한 미시적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될 여타 대학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지방자치체가 보다 활성화 되고 지방의 대학들이 제 모습을 지니게 되면 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예컨대 부산대학교의 경우, 부산광역시 또는 특수연구소와 컨소시엄으로 '해양기록관(Oceanographic Archives)' 또는 '부산국제영화기록관(PIFF Archives)'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내부 생산 기록과 그리고 지역사회, 범국가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대학과 직접 관련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 관리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학에서 기록관이 설립되고 정착되려면 활동영역이 어쨌든 앞에서 서울대학교가 제시한 문제점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과제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관의 확립과 운영방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록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기관의 명칭확립이 필요하다. 명칭의 정지작업을 위해서 다음 물음에 두 가지 답을 선택을 하여야 한다. 대학이 요구하는 기관의 성격은 ① 고문서와 사료를 수집하는 歷史館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② 현대자료까지 포괄하는 記錄館 개념으로 넓힐 것인가, 그리고 수장하는 자료의 범위는 ③ 전시를 위주로 하는 박물관자료(museum piece)를 우선 할 것인가, 아니면 ④ 문서를 비롯한 보존기록(archives)을 핵심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명칭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위의 물음에서 ③④를 확정한다면 그 명칭은 '대학기록관' 또는 '대학기록센터'가 제격에 맞다. 다만 법률이 명시하는 '자료관'의 개념은 본 논문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록관의 성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대학의 모든 주요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수집, 보존할 수 있는 대학 차원의 기록관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독자적으로 자체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10개 대학 중 연세대와 이화여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박물관규정의 한 부분으로 기술되거나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곳도 있다.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기록물관리에관한규정"은 앞으로 설치할 대학과 실무현장에서 유용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학기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대학 내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평가, 선별하고 관리와 보존업무를 전담할 항구적인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 박물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전시공간의 공동사용이라는 이점과 홍보기능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하더라도 자료의 성격과 업무의 유사성으로 보아 도서관에 소속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대학기록관은 대학의 장기적 비전(vision)과 종합계획(master plan)을 위해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하버드대학의 예처럼 'Record Management Program'같은 제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록전문가(archivist)가 필요하다. 현재 설치된 10개 대학에는 불과 1~2명의 전문가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박물관직원이 겸임하거나 도서관에서 파견된 사서 또는 임시직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록관의 주체는 아키비스트들이다. 이들에게 상응하는 역할과 임무를 주어 기록의 평가권한과 함께 보존기간 및 보존자료의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기록을 적절히 보존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기록관이 설치되어 독립적 공간과 시설을 갖춘 대학은 이화여대 한 곳 뿐이고 나머지 모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문서 및 기록자료를 위한 서고공간과 전시공간도 대부분 도서관 또는 박물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자료의 성격상 유일본, 희귀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도서관의 귀중본 서고처럼 표준 항온습도를 유지하는 특별수장고가 준비되어야 하며 史庫와 같은 독립건물과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기구와 시설, 사람이 모두 갖추어 지더라도 기록관의 운영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 알려진 몇 개의 활동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매몰되어 가고있는 대학의 역사를 발굴한다.

예) 이화인들이 즐겨 불렀던 교가, 응원가, 학생회가, 찬송가 등 악보수집, '이화의노래' CD발간

② 대학사를 집중 연구하는 고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한다.

예) 연세대학교백년사, 부산대학교오십년사, 이화역사자료집 제1집, 이화100년 사진자료집, 이화110년 화보집, 도록발간

③ 종래 교사편찬사업 종료와 함께 인멸되고 있는 자료를 재수집 한다.

예) '부산대 53주년 기념 반세기 발자취 전시회'

④ 학교 홍보를 위한 역사적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예) '이화동창문인자료집'등 동창들의 업적, 저작물 실물 및 사진전시

⑤ 학교역사를 알리는 간행물 발간, 신입교수와 학부, 대학원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학과소개, 학과창설 특별이벤트 등을 계획한다.

이와 같은 각 대학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활동이다. 그러나 각 대학이 저마다 아무런 특성이 없이 일회성 행사나 홍보위주로 활동을 추진한다면 업무의 낭비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대안적 모색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도 미국의 SAA 같은 조직이나, 일본의 記録擔當者協議會같은 협의기구를 조속히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단법인으로 ‘한국기록관리협회’(‘한국기록보존협회’의 개칭)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있지만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국규모의 학회가 창설되어야 하며, 이 속에 ‘대학기록관 분과 학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후기: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대학교대학원 「문서관경영론」에서 자료수집과 토론으로 共助해 주신 박사과정의 박정길, 도태현교수와, 국의 University Archives Home page의 상당한 분량을 수집한 석사과정의 강정용 등과, 최근 국내외 대학기록관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부산대학교 대학사자료실’의 김정남선생의 도움이 컸다. 이분들께 고마움을 드린다.>>